가정간호학회지 제24권 제3호, 2017년 12월
J Korean Acad Soc Home Care Nurs Vol.24 No.3, 336-344, December, 2017

여자간호사가 인식하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영향요인*

이은수[1] · 권혁수[2] · 이양숙[3]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학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직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확대 및 성 고정관념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Shin, Seo, & Lee, 2016). 이로 인해 여성의 직업으로 대표되는 간호직에도 남성들이 진출하여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과 남자간호사의 배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남자간호사는 10,542명이며, 최근 5년간 배출된 남자간호사만 6,318명에 이르고 있다(Korean Nurses Association 2016). 전체 간호사 중 남자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2.3% 수준으로(Korean Nurses Association, 2016) 아직도 남자간호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병원조직의 인적자원 중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는 역할명확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지만 간호사의 역할 중 간호기술을 위한 노력보다 간호팀원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 때 이직의도가 높아서 다른 간호사와 협력하는데 부담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Park, 2002), 특히 남자간호사의 경우에는 더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남자간호사의 경우에는 56.5%가 이직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45.2%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4). 간호사의 이직은 재직간호사의 업무량을 가중시키며, 간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Ahn, Lee, Kim, & Jeong, 2015), 현재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남자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도와주어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앞으로 간호사 인력관리에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여겨진다.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병원에 남자간호사들이 임상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탐색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Ahn, Seo, & Hwang, 2009; Shin et al., 2016; Son, Koh, Kim, Moon, & Yi, 2003). 이런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스스로가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직업이라는 간호사 이미지로 인하여 남자간호사들은 일반 남자들과 다르게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에서는 남자간호사들의 간호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남자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환자를 간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남자간호사의 이직하려는 시도(45.2%)는 병원간호사 이직률 평균 12.4%(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7)에 비해 높은 편이다. 남자간호사의 이직의사에 관한 설문지 조사에서 '봉급이 적다', '승진의 기회가 적다', '남자간호사로써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전문직 발전에 기회가 적다'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남자간호사들의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이직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가장 우선적인 이직이유는 '인간관계'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자간호사와

주요어 : 간호직 인식, 남자간호사, 이미지
* 이 논문은 제1저자 이은수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1) 문경대학교, 초빙교수
2) 공주대학교, 부교수
3) 공주대학교, 교수(교신저자 E-mail: sunnylee@kongju.ac.kr)
투고일: 2017년 11월 23일 수정일: 2017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8일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여자 동료간호사와의 의견차이', '여자들의 시기, 질투, 경쟁사회에서 심한 견제를 함', '여자 상사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로 나타났다(Lee, 2004). Kim(2013)의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들의 이직경험의 중심현상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음' 등으로 인한 '혼돈스러움'이 파악되었으며, 맥락조건으로 '여성중심사회에서 힘듦', '여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음', '여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움', '여자들 방식대로 행동함', '갈수록 단절된 생활을 함' 등이 포함이 되어 남자간호사들이 다수의 여자간호사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이직이유가 '여성 주류 집단 내 적응이 어려움', '남성적 특성이 간호업무에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과 '성 고정 관념과 선입견으로 인해 어려움'에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Ahn et al., 2009). 또한 남자간호사들은 여자간호사에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세요',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남자로 보기', '성 고정 관념을 갖지 않고 대해주기' 등을 바라고 있었다(Shin et al., 2016).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여자간호사들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남자간호사를 동료간호사로서 인정하면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남자간호사가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여 현장에서 잘 적응하는데 중요하며, 여기에는 무엇보다 여자간호사들이 인식하는 간호사이미지가 남자간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간호직 인식이란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서 갖는 신념, 생각, 느낌의 합'으로(Kotler & Clarke, 1987), 간호사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사의 간호사 이미지와 대중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는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Park, Kwon, & Kim, 2010) 대중매체에 반영된 이미지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대중의 관점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Yom et al., 2015). 이에 간호사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직접경험과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을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다.

간호직 인식은 간호사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로 분류될 수 있다(Yang, 1998).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자는 간호대학생이 가장 많았고 일반대학생, 고등학생 순이었으며, 간호사 이미지의 주체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4.3%에 그쳐 간호사 이미지를 파악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저조하였다(Shin, 2015). 이 중에서도 여자간호사를 대상으로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Kim, Kim, Hong과 Kim(2015)의 연구에서 병원간호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중 전통적 이미지가 제일 높았다. 간호사의 이미지 중 전통적 이미지가 높다는 것은 간호직을 '백의의 천사'로 상징되는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Kim, 2014)으로 남자간호사에 대해 성 고정관념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연구자는 여자간호사가 인식하는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남과 여로 구분된 간호사가 아닌 간호사 동료로서 인식되어 궁극적으로 병원현장에서 남자간호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여자간호사가 남자간호사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여, 남자간호사의 병원현장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경험을 파악한다.

둘째,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한다.

셋째,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여자간호사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광역시, B광역시, C시, K시의 대학병원 1곳, 종합병원 3곳, 전문병원 1곳의 근무 중인 여자간호사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력(Power) .95,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ES) .25로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36명이 필요하였으며, 탈락율 10% 고려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143명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여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9문항,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 3문항, 간호직 인식 도구 33문항,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도구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은 대학교에서 남자 간호학생과 공부한 경험이 있는지,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책 등)에서 남자간호사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지, 남자간호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의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 유무는 경험이 '없음'은 0점, '있음'은 1점으로 처리하였다.

● 간호직 인식

Mun(2010)이 사용한 간호직 인식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전통적 이미지 5문항, 사회적 이미지 9문항, 전문적 이미지 12문항, 간호직 전망 8문항으로 4개 영역의 총 33개 문항이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문항 31개, 부정문항 2개이며,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un(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7,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전통적 이미지 .75, 사회적 이미지 .72, 전문적 이미지 .88, 간호직 전망 .89이었다.

Mun(2010)의 도구는 간호사 이미지를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로 분류한 Yang (1998)의 도구를 토대로 개인적 이미지를 간호직 전망으로 변경하여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인 간호학 교수 1인과 남자 고등학교 교사 1인을 통해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 간호직 인식을 확인하는데 더 타당한 도구라고 판단되어 사용하였다.

● 남자간호사 이미지

Mun (2010)이 사용한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16개 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 14개, 부정적인 문항 2개이며,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남자 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Mun(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2,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0 이었다.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D광역시, B광역시, C시, K시의 대학병원 1곳, 종합병원 3곳, 전문병원 1곳의 간호부장, 간호과장을 찾아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간호부의 승인을 얻은 후 수간호사의 도움을 얻어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고, 질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였다. 본 자료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부가 배부되었고, 이 중 148부가 회수되었으나,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중복 응답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14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연구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승인번호 : KNU_IRB_2014-36)을 받았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지 참여시 모든 자료는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밝히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참여하지 않아도 일체의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도중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추후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또한 모든 응답자에게 설문지 답변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남자 간호사에 관련된 이전 경험, 간호직 인식,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구하였다. 또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이와 관련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여자간호사의 일반적 특성과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

여자간호사의 연령은 23세에서 50세로 평균 33(±6.93)세 이었고, 30~39세가 66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76명(53.1%), 종교가 있는 경우가 73명(51.0%)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1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현 근무지는 종합병원이 76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경력은 5년 이상이 103명(72.0%)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부서는 특수부서가 70명(49.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는 17명(11.9%)으로 진료보조인력(PA), 전담 간호사 등 그 외 타

부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중 의료계 종사자가 있다고 대답한 여자간호사는 51명(35.7%)이었으며, '남자가 간호사에 적합하다'고 대답한 여자간호사는 125명(87.4%)이었다(Table 1).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은 대학교에서 남자간호학생과 공부한 경험이 있는 여자간호사는 92명(64.3%)이었으며, 대중매체에서 남자간호사를 접한 경험이 있는 여자간호사는 109명(76.2%), 남자간호사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자간호사는 84명(58.7%)이었다(Table 2).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의 점수는 3.71±0.81점이었다. 간호직 인식에서 하위 영역인 전통적 이미지는 3.84±0.75점, 사회적 이미지는 3.09±0.95점, 전문적 이미지는 4.07±0.70점이었으며, 간호직 전망은 3.70±0.88점이었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평균 3.34±0.86점이었다(Table 3).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에 따른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차이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 관련 이전 경험에 따른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간호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여자간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SD	Range
Age(year)	20～ 29	39(27.3)	33.62±6.93	23～50
	30～ 39	66(46.2)		
	≥40	38(26.5)		
Marital status	Unmarried	67(46.9)		
	Married	76(53.1)		
Religion	Yes	73(51.0)		
	No	70(49.0)		
Education Level	Junior college	69(48.3)		
	University	71(49.7)		
	Graduate school	3(2.0)		
Type of Hospital	Special hospital	29(20.3)		
	General hospital	76(53.1)		
	University hospital	18(12.6)		
	Etc.	20(14.0)		
Career length(year)	<1	13(9.1)		
	1-5	27(18.9)		
	≥5	103(72.0)		
Department	Ward	44(30.8)		
	Special part	70(49.0)		
	OPD	12(8.3)		
	Etc.	17(11.9)		
Nurses among relatives	Yes	51(35.7)		
	No	92(64.3)		
Perception that male nurses are relevant to the nursing area	Yes	125(87.4)		
	No	18(12.6)		

OPD: Out Patient Department

<Table 2> Prior experiences with male nurses (N=143)

Type of Previous experiences	Category	N	%
Studying with male nursing students	Yes	92	64.3
	No	51	35.7
Mass-media contact of male nurses	Yes	109	76.2
	No	34	23.8
Working experiences with male nurses	Yes	84	58.7
	No	59	41.7

여자간호사보다 이미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남자간호사를 접한 경험이 있는 여자간호사가 경험이 없는 여자간호사보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8)(Table 4).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관계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r=.53,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하위 요인으로는 사회적 이미지(r=.41, p<.001), 전문적 이미지(r=.45, p<.001), 간호직 전망(r=.49,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간호직 인식의 하부 요인 중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남자가 간호사로 적합하다는 생각(남자의 간호사 적합성)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매체의 경험을 독립변수로 Dummy처리 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 한계가 0.431～0.982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1～2.32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는 1.000～22.141로 30을 넘지 않았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788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19.20～15.04로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도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간호직 인식의 하위 요인인 간호직 전망(β=.193, p=.049), 남자의 간호사 적합성(β=.329, p<.001),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β=.244, p<.001), 사회적 이미지(β=.225, p=.009), 전문적 이미지(β=.191, p=.021) 모두 남자

<Table 3> Female nurses's nursing job recognition and perceived image of male nurses (N=143)

Variables	Mean±SD	Range
Nursing job recognition	3.71±0.81	1～5
Traditional image	3.84±0.75	1～5
Social image	3.09±0.95	1～5
Professional image	4.07±0.70	1～5
Nursing job prospectus	3.70±0.88	1～5
Perceived image toward male nurses	3.34±0.86	1～5

<Table 4> Differences of perceived image toward male nurses according to prior experiences related to male nurses (N=143)

Variables	Categories	Image toward male nurses	
		Mean±SD	t(p)
Nursing job relevance to male	Yes	54.67±8.00	1.52(<.001)
	No	45.05±8.79	
Studying with male nursing students	Yes	53.51±8.56	.15(.928)
	No	53.77±9.23	
Mass-media contact of male nurses	Yes	54.52±8.50	.53(.008)
	No	50.05±8.52	
Working experiences with male nurses	Yes	52.90±9.29	1.47(.362)
	No	54.25±7.74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female nurses' nursing job recognition and image toward male nurses (N=143)

Variables	Traditional image r(p)	Social image r(p)	Professional image r(p)	Nursing job prospectus r(p)	Nursing job recognition(Total) r(p)
Image toward male nurses	.16(.058)	.41(<.001)	.45(<.001)	.49(<.001)	.53(<.001)

<Table 6>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female nurses' image toward male nurses (N=143)

Variables	B	SE	β	t(p)	R^2	Adj. R^2	F(p)
Constant	7.81	5.15		1.52(.132)	.502	.427	22.51 (p<.001)
Nursing job prospectus	.316	.159	.193	1.99(.049)			
Nursing job relevance to male	8.59	1.67	.329	5.12(<.001)			
Mass-media contact of male nurses	4.95	1.30	.244	3.80(<.001)			
Social image	.429	.162	.225	2.65(.009)			
Professional image	.294	.125	.191	2.35(.02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 중 간호직 전망, 남자의 간호사 적합성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가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42.7% 설명하였다(F=22.15, p<.001, Adj. R^2=.427)(Table 6).

논 의

본 연구에서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은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3.51점(Jeong & Yoo, 2010)이었으며, 간호사는 3.66점(Kim et. al, 2015)이어서 본 연구의 간호직 인식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여성의 전문직으로 대표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간호사에 대한 일반인의 이미지는 Lee(1996)의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 경우 2.72점이었으며, Mun(2010)의 남자고등학생, 학부형, 교사의 경우는 2.92점, Kang, Go, Yang과 Kim (2003)의 고등학교 교사, 방송인, 법무 행정 공무원에서는 3.19점이었다. Kim과 Kim(2001)의 환자, 보호자, 의사, 사무행정직의 경우는 3.49점, Han, Sohn, Lee와 Choi(2003)의 연구는 평균 2.91점 이었다. 이처럼 간호사의 간호사 이미지가 일반인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사 스스로가 간호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간호직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도 간호직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등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직 인식의 하위 영역별 점수는 전문적 이미지가 평균 4.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이미지가 3.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2015)의 결과에서는 전통적 이미지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이미지 3.43점으로 가장 낮았다. Park(2002)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이미지와 내용이 유사한 돌봄 이미지가 가장 높게, 사회적 이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간호사에 대한 일반인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 보호자, 학부형을 대상으로 한 Yang(1998)의 연구와 환자를 대상으로 한 Kang(2001)의 연구에서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게, 개인적 이미지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Kang 등(2003)의 연구에서도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게, 간호직 전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이 간호사보다 간호직을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호사들은 전통적 이미지에서 전문적 이미지로 간호사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호사들이 간호사 이미지가 전문적 이미지로 변화될수록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도 변화되리라 여겨져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3.34점으로 나타났다. Lee(1996)의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의 경우는 2.66점이었고, Mun(2010)의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은 3.22점, 학부형은 3.33점, 교사는 3.41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는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최근에 이르러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간호직이 더 이상은 여성만의 직업이 아니며 남녀 누구나 선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남자간호사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남자가 간호사에 적합하다'고 대답한 여자간호사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여자간호사보다 남자간호사의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서 남자간호사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Mun(2010)의 연구에서 '남자간호사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포함한 전 영역에 적합하다'의 문항에 남자고등학생과 학부형, 교사 모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간호직은 여성의 직업이다'의 문항도 학부형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에 미루어 볼 때 남자가 간호직에 대한 적합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날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Wee, Park과 Mi(2013)의 연구에서 간호직 내에 아직도 성 역할 고정관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2014)의 남자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주관

성 연구에서는 보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간호사의 산부인과 배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업무자체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사로부터의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존경받지도 않을 뿐더러 미래의 전망 또한 밝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도 보수적 가치관 혹은 간호사의 전통적인 이미지로 인해 성별에 따른 편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자간호사 개인차원의 발전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병원수준에서 남자간호사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부서 배치와 지속적인 추후 교육을 통해 남자간호사의 적응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므로 전문직으로의 인식과 위상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자간호사들에게는 여자간호사들이 주류인 현장에서 남자간호사가 겪을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맺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남자간호사를 접한 경험이 있는 여자간호사가 경험이 없는 여자간호사보다 남자간호사의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Lee(1996)의 연구에서도 간호사 이미지에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등)의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xyby(2003)는 대중매체가 남자간호사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남성의 간호직 선택 비율을 증가 시키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Mun(2010)의 연구에서도 대중매체가 간호사 이미지에 가장 높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여 남자가 간호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남자간호사를 접해본 경험이 있으면 남자간호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계 차원에서 대중매체 속에서 간호사가 여성만의 직업이 아니며, 남녀를 벗어나 환자의 질병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직 인식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서 간호직 인식이 높을수록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Mun(2010)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런 결과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간호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남자간호사 이미지도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여자간호사의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간호직 전망, 남자의 간호사 적합성,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가 총 42.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Yang(1998)의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의 결정요인은 주관적 요인, 제도적 요인, 매체적 요인이었다. 주관적 요인에는 간호사에 대한 직접 경험이 포함되어 본 연구의 남자간호사와의 경험 요인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매체적 요인에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포함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간호직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앞으로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도 점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앞으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설명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관계와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은 3.71점이었다. 간호직 인식에서 하위 영역으로 전문적 이미지는 4.07점, 전통적 이미지는 3.84점, 간호직 전망은 3.70점, 사회적 이미지는 3.09점 순이었다. 남자간호사의 이미지는 평균 3.34점이었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여자간호사의 간호직 인식,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 간호직 전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간호직 전망, 남자의 간호사 적합성, 남자간호사에 대한 대중매체 경험, 사회적 이미지, 전문적 이미지로 총 설명력은 42.7%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교육과 실무, 연구에서 남자간호사의 적응을 돕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간호대학 교육과정 중 남녀 간의 차이와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임상현장에서도 여자간호사와 남자간호사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후교육과 교류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실무 현장에서 남자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인력관리 체계가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사회적 흐름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남자간호사의 이미지에 관한 반복연구와 대중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References

Ahn, K. H., Seo, J. M., & Hwang, S. K. (2009). Content analysis of mal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1*(6), 652-665.

Ahn, M. K., Lee, M. H., Kim, H. K., & Jeong, S. H. (2015).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nurses. *Journal of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1*(2), 203-211.

Han, S. S., Sohn, I. S., Lee, M. H., & Choi, K. S. (2003). A study on nurse' image in a medical center.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8*(1), 113-125.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7, February). 2016 Annual Review. web site: http://www. khna.or.kr

Jeong, H. S., & Yoo, Y. S. (2010). Image of nurse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Nursing, 24*(1), 29-38.

Kang, H. Y., Go, M. H., Yang, J. J., & Kim, M. S. M. (2003).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798-801.

Kang, Y. S. (2001). A study on change of nurse image after hospitalization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1), 22-37.

Kim, H. J., & Kim, H. O. (2001). A study of the nurse. *Journal of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7*(1), 97-110.

Kim, H. S. (2013). *The job changing experience of a male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im, I. J. (2014). *A Q Study of images on male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Pusan.

Kim, S. R., Kim, Y. J., Hong, S. H., & Kim, C. S.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s of nurses and job satisfaction perceived by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1*(1), 148-155.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6, February). Male Nursing Students 10,000 people ages. web site: http://www. koreanurse.or.kr

Kotler, P., & Clarke, R. N. (1987).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Lee, J. H. (1996). *Mal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nursing as a career cho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Lee, S. Y. (2004). *A study of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s of turnover of male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Mun, Y. J. (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nursing, male nurses, and nursing as possible career consid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go.kr.

Oxtoby, K. (2003). Men in nursing. *Nursing Times, 99*(32), 22-23

Park, H. S. (2002).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nursing care role orientation, job characteristics, and turnover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Park, S. A., Kwon, H. J., & Kim, H. J. (2010). The Portrayal of Nurses and Physicians in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6*(2), 33-42.

Shin, J. H., Seo, M. H., & Lee, M. I. (2016). Nursing jobs and gender in our age of convergence: Research on male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287-297.

Shin, S. R. (2015). Analysis of Studies on Nursing Image Performed in Korea from 2003 to 2014. *Journal of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1*(4), 435-446.

Son, H. M., Koh, M. H., Kim, C. M., Moon, J. H., & Yi, M. S. (2003).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1), 17-25.

Wee, H., Park, Y. R., & Mi, S. S., (2013). High school boys' images of men as nurses. *Journal of Academy Fundamental Nursing*, *20*(2), 118-128.

Yang, I. S.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Journal of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4*(2), 289-306.

Yom, Y. H., Kim, K. H., Son, H. S., Lee, J. M., Jeon, J. H., & Kim, M. A. (2015).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1*(3), 412-423.

Factors Affecting Female Nurse's Image of Male Nurses*

Lee, Eunsu[1] · Kwon, Hyukso[2] · Lee, Yang Sook[3]

1) Lecturer, Moonkyung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3)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Kong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job recognition of female nurses and perceived image of male nurses, and to investigat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is perceived image.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15 with 143 female clinical nurses who worked at hospital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emale nurses recognition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images of male nurses. Social image(r=.41, p<.001), professional image(r=.45, p<.001), and nursing job prospects(r=.49, p<.001)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ceived image of male nurses. Nursing job prospect(β=.193, p=.049), perception that male nurses were suitable for their jobs(β=.329, p<.001), mass media experience related to male nurses(β=.244, p<.001), social image(β=.225, p=.009) and professional image(β=.191, p=.021) explained 42.7% of the variance in image of male nurses.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ursing education and research should find concrete ways to improve perceived image of male nurses. It will enhanc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 by improving male nurse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female nurses.

Key words : Male, Nurses, Recognition, Image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ongju Univers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Ya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 in Kongju University
443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nam, 32588, Korea
Tel: 82-41-850-0311 Fax: 82-41-850-0315 E-mail: sunnylee@Kongju.ac.kr